

전남 서부권

공무원 잦은 인사·휴가철이라 바빠서...

무안 민원행정 소홀... 군민들 뿔났다

인허가 등 민원 기간 내 처리 37% 불과

무안군이 조직개편에 이어 잦은 인사를 실시, 민원행정과 인·허가서비스에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4·11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철주 군수는 '군민을 위한 감동의 행정, 잘사는 무안을 만들겠다'며 지난 6월 29일 행정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한편 7월들어 3차례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김 군수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지난 달 2일 35일·과·소중 25명의 서기관과 사무관 인사를 한데 이어 20일 6급

145명 중 98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또 무안군의 대표축제인 연꽃축제(7월 25~29일)가 끝난 이튿날인 30일에 7급 이하 공무원 97명을 자리 이동시켰다. 이달 중순에는 무급계약직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장기간 잇따른 인사와 함께 연꽃축제와 휴가기간이 맞물려 인·허가 등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으며 민원인들의 불만을 샀다. 무안군 민원사무 처리부대장에 따

르면 지난 6~7월 말까지 두달 동안 개발행위와 건축물 인·허가 건수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 허가 68건과 토지개발행위 32건 등 총 10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정기간내 처리된 것은 3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건은 법정기간 이후에 처리돼 군 민원처리 법정기간 처리능력은 37%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 이모(51)씨는 "최근 무안군에서 공장 인·허가를 받는데 법정기간(15일)보다 4배나 긴 58일이 소요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무안군 관계자는 "여러번 인사가 단행됐지만 민원처리와 군정업무 처리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휴가가 끝나는 9월초에는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축제행사 준비, 휴가가 겹쳐 업무보고도 이종으로 해야 했다"며 "일부 담당도 2배로 늘었고, 업무처리 속도도 당연히 느릴지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서남권 대표 체험 학습지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남 공룡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됐다

각종 세계 혜택·도내 박물관과 인적 네트워크 가능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박물관에는 400여 점의 희귀 공룡 화석 등이 전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용 전력요금 등 각종 세계 혜택을 받고 도내 박물관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게 됐다. 제1종 전문박물관은 ▲박물관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등을 갖춰야 한다. 공룡박물관은 공룡 화석지 자

유적지 74만 824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07년 건립됐다. 공룡 화석지는 1998년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됐다. 특히 세계에서 진품 화석이 12개뿐일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큰 알로사우루스 화석도 아시아 최초로 선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 가시화

전남도 심의 조건부 의결 연내 실시설계 용역 의뢰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9월말 결정·고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건부 의결 10개 사항과 관련해 ▲경관관리 계획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완충 공간 설정 ▲주차장 계획 추가 등 7개항은 전적으로 반영하고 ▲목포시 사업 시행 참여 ▲온금·금화·서산동 3개 구역 통합 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3개항에 대해서는 현



서산 온금지구 개발 조감도

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당초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법적 확보 비율인 8.5%(256세대)보다 뛰어난

14.4%(446세대)를 확보했으나, 전남도는 이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지구내 국·공유지가

45%에 달해 목포시가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인가 전 조항과 협의해 추진 하되, 기반시설은 재생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50%)를 지원받아 목포시에서 설치할 방침이다. 온금·금화·서산동 3개 구역 통합 개발에 대해서도 분리 개발과 통합 개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3개항 조건부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시는 오는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12월 중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시립화장장 10월부터 휴업

연말까지 3개월간

목포 시립화장장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평균 20기 가량 화장을 하는 서남권 유일의 화장장이 멈춰 서면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장 대만마

지 우려된다. 목포시는 화장시설도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규정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억원을 들여 시립화장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목포, 신안, 해남군 등 서남권 주민들은 광주나 여수의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1971년 건립한 시립화장장은 시설이 낡은 데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개수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2014년 완공 목표로 대양동 일대 친환경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공해 화장로 6기와 불안당, 장례식장을 겸비한 종합 장사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 북

정읍시, 첨단산단 외국기업 유치활동

정읍시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분양을 앞두고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방문, 외국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다. (사진)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김영길 부시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등 정읍시 방문단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오페르 포레티 상무관을 면담했다. 방문단은 면담을 통해 정읍시 투자환경, 투자지 지원조건, 세계 혜택 등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첨단산업인 에너지, 수(水)처리, 농업분야 신기술 이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양국간 투자 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시작으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20여개의 타깃기업을 선정,



적극적인 유치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과학 산업단지는 호남 고속철도 내장산 IC와 3대 국책연구소 인근 신정동 일원 89만8000㎡(27만 2000평)에 9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첨단 방사선연구소내 RFT실용화연구동에는 현재까지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원 바이오소재 연구소 열린 연구실에도 3개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구림면 호정소에 오토 캠핑장 조성

예산 4억7000만원 확보

순창군은 구림면 호정소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한다.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은 구림면 금천리·안정리 일원 11만㎡ 부지에 오토 캠핑장, 편의시설, 산책로와 자연거도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또 지난 7월 편입토지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이달 편입토지 감정평가 완료 및 손실보상금도 확정했다. 다음달에는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

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유원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오토 캠핑장이 들어설 구림 호정소는 회문산 인근으로 이곳에는 역사와 문화, 자연휴양림 등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풍부해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호정소 주변 지방2급 하천인 처천 정비사업을 통해 캠핑장이 가능한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머지않아 순창지역이 명실상부한 오토캠핑장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폭우 피해 보상금 고작 100만원?

군산 주택·상가 침수 주민 '쥐꼬리 지원금'에 울상 시 "사유시설 복구비 등 기준액 낮아 어쩔 수 없어"

지난 13일 내린 400mm에 달하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군산지역 주택·상가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이 쥐꼬리만 한 보상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에 울상을 짓고 있다. 시가 주택과 상가 피해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원금 액수가 턱없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로 나운동, 흥남동 등 10개 동에서 주택 1800여채가 침수되고 저지대 점포 2000여개도 물에 잠기는 현재까지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원 바이오소재 연구소 열린 연구실에도 3개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도배·장판 수리비 명목으로 한 채당 100만원의 보상금 성격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수재 의연금금 지급이던 가구당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모금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 침수피해를 본 상가 역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도비) 재원에서 상가

당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상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큰 상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모(문화동)씨는 "가득이나 불화로 어려웠는데 점포 침수로 큰 타격을 입어 죽을 맛"이라면서 "고작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시설은 복구비와 재정지원비 기준액이 낮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 피해자에게는 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도마 신' 양학선 고창 방문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가 지난 22일 고창을 방문했다.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양 선수의 부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단신

군산 수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군산시는 대한지적공사 군산시지사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는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특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 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시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배' 캐나다 등에 500t 수출

김제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배'가 지난 22일 대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00t 이상 캐나다 등으로 수출된다. 이번 수출길에 오르는 지평선배는 1978년 원에 연구소에서 만삼길을 교배 개발한 품종인 '원황'이다.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제시 안상일 지평선배 마케팅 과장은 "앞으로도 품질 향상 및 철저한 선별로 김제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농산물 수출 개방화 시대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남원 9월 1일 '춘향·이도령 길문화축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는 9월 1~2일 남원~전주간을 잇는 뒷밭재 솔바람길 등지에서 사랑의 길,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춘향·이도령 길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숲속 음악회를 비롯해 퍼라비즈공예, 다육이 식물

심기, 캐리터 우드, 캐리터 티셔츠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사매면 발전협의회 부녀회에서는 먹거리장터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향토음식, 막걸리, 도토리묵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군·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업무협약

순창군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지난 22일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지식정보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노후설계 교육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했던 지식정보와 인력의 상호교류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을 약속했다. 황송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인력을 활용한 재무설계 분야와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